

장벽 헐기

모두 속했습니다- 모두 봉사합니다

92 호 - 겨울 2012

북미주 개혁교회와 미주 개혁교회의 사역 - 장애우 사무처

주제

겨울 : 이번 호는 장애우들과 함께사는 집사님들,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봄: 다른 것들 처럼 장애우들의 삶도 점점 길어집니다. 그들이나 그 자녀들과 함께사는 노년들을 여러분의 교회서는 어떻게 돋고 계십니까? '12, 2월 15일까지 소식들을 보내주세요.

여름: 인터넷은 연락망과 사역을 위해 새 가능성들을 줍니다. 장애우들과 함께사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어떤 기회들을 주는가요? 여러분의 교회는 이들을 위해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12, 5월 10일까지 소식들을 보내주세요.

이해함이 봉사로 이어질 때

엘리자베스 술츠, 믿음개혁교회 집사, 미시간, 홀랜드

뇌성 마비로 지냅은 움직임과 말에 영향을 주기에 계속 내 자신이 되새겨야만 합니다. 어른이 됐을 때 나는 사람들에게 대학졸업장이 있다고 하면 “어린애 말”을 안합니다.

다른이들은 나의 의자를 보고 내말을 듣고 나서야 내가 지능적으로 장애임을 짐작합니다. 그들은 확실히 나를 한 지도자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새 교회인 믿음교회에 등록했을때 대중인식이-한 투명인간에서 한 지도자로 전환되었습니다. 44살이 지나서야 믿음의 공동체가 진실로 나를 이해하였습니다. 나는 내 나이의 진짜 친구들을 갖게 되었지요.

이 바뀜은 한 주일 저녁에 짐목사님이 나에게 행정 집사로 추천되었다고 말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됐다” 교회식구들과 함께 축복을 받았다. 나는 다른사람들처럼 육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역을 할 수 있다.

집사로 선출된 후 나는 할일을 원해 첫번으로 현금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장애를 갖은 다른 성도와 의논 후 우린 두개의 현금함을 잡을 수 있도록 의자에 부착하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 생각을 교회의 금속노동자인 폴 라트벌에게 말해 만들었고 나는 첫 번으로 독립기념일 주간에 혼자서 현금을 거뒀을 때는 특별하였습니다.

또한 나는 우리 교회 행정 집사의 일원으로 카운실이나 예배위원회와 카운실사이 연결로나 우리교회 집사의 자격으로 노회등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갖고 사는 이유로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할수 없는 관점들을 갖곤합니다. 그 예로 지난 노회때 장애우들을 겨냥하는 새교회 사역들을 의논할 때 였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것들을 질문하였고, 질문한 여러가지들을 대답하곤 하였습니다. 믿음교회에 속한 것 외에 나는 해워스 홀랜드 토스트매스터의 사장으로 오타와 카운티 공립 정신 건강소에서 파트 타임 교사로 장애우들과 일하는 직원들에게 가르침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글에선 “내가”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 식구들을 나와 함께 축복하시고 다른점들을 감사하며 이해한 분 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진실로 나는 나의 장애를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왜냐면 그것들로 인해 지금의 나인 여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방법이나 방법안에

로빈 세일러, 미주개혁교회 목사및 선라이즈 사역의 코드네이터, 그랜드 랠프츠, 미시간

다른것들과 다른식으로 느끼는 것은 불편합니다. 곧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된다는 느낌보다 더 나쁜 감정은 없습니다.

뇌성마비로 살면서 나는 자주 남에게 짐이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내 학생시절때 큰 도움을 요함에 미안함을 갖습니다; 학생들과 여행중에 나의 가족은 나의 부적당한 감정들을 다른이들에게 쉽게한 것들입니다. 지금은 실제 누가 (내가 선라이즈 사역의 코디네이터로 섬기는) 삼위일체 개혁교회에 오면 나의 개인적 필요들과 함께 도와줍니다. 그 도움은 나와 내 동역자들에게 우리가 해야할 일들을 집중하게 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힘을 가능하면 독립되기 위해 쓰고 있습니다. 수년간 나는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기회의 일에 거절해 왔는데 왜냐면 내게 요구한 일들을 혼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장벽들은 어렵고 인상적으로 문제의 분수를 초래합니다. 진짜 벽은 나와 공동체의 사람들이 나의 장애에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45년 전엔, 장애 권리 운동은 없었고 “모두 속했습니다-모두 봉사합니다”란 개념은 더 더욱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고 보면서 일하는 모든 장애우 함께 하는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과 교감갖는 목사님들이나 정치 의원들의 노력을 앗아갔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위해 주신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앗아갔습니다.

창세기 1장 부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귀중한 창조물로 포함해 부르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우리 안에 잊고 버려진 자들과

함께하십니다:”내 가족중 이 적은 자에게 한것이 내게한 것이다.”

우리는 아직 함께갈 긴 믿음의 경주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은 사람들의 필요들에 더 많이 민감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을 수용을 포함하는 창조을 생각해야 합니다. 장애우와 가족들 역시 위원회들이나 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적극적인 행동들 취하고 봉사하며 나가야 합니다. 장애로 인해 영향을 받는 우리들은 우리와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 프로그램의 풍요와 깊이로 발전을 만들수 있도록 말하며 옹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오래전에 진행돼 온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함께함을 성경적인 원리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초대 신자들이 자신을 “길의 사람들”이라 부른것 처럼 내 존재도 하나님이 나를 교회 사명의 앞 전선에 포함을 인식하는 “길 안에” 있기를 확실히 원하신다는 것이다.

정신질환과 예수를 섬김

론 헤터웨이와 질 펜스키, 프랭클린 개혁교회, 뉴틀리, 뉴저지

무려 36년 이상의 나의 장애를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으로 되찾았다. 위로, 관용과 시간을 통해 나의 삶을 믿음으로 용기를 복돋아 주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26절에서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안엔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다. 바울도 빌립보서 4:13에서 “나는 그리스도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셋다.

나는 프랭클린 개혁교회서 두번째 장로로 섬기고 있다. 또한 나는 설교도 하며 그리고 그 사역이 효과적으로 잘 받아드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2번의 3년 기간은 교회의 성도들과 기도하며 일하며 웃으며 사랑해온 쉬운 짐의 성도로 지내왔다.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짐을 편지나 카드를 보내면서 가볍게 하도록 노력해왔다. 교회는 여러 문구나 카드, 우표등으로 도와주고있다. 나는 고통을 갖고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어떤지를 알기에 큰 연민을 느끼고 있다.

나의 장애-정신질환-은 잔인한 마비질환이지만, 우리교회에선 협조와 위로와 용납을 받았다; 그것은 “나의 집”이었다. 보통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남들을 두려워하거나 숨거나 기억하기 어려워한다. 거기엔 편집증 정신 분열증에 부착된 여러 고정관념이나 이야기들 그리고 성흔들이 있으나, 나는 교회 가족들에게서 다름아닌 포함과 관용과 용납을 찾았다.

-론 헤터웨이 장로

론 헤터웨이의 은사들은 교회에 여러가지를 가져다 주었지만 우리가 조금도 열지 않았을 때는 은사들로도 생각지도 못한다. 그는 사람들을 계속 연결하면서 위로을 주며 특히 어려운 시간에 있을 때 그의 설교는 (젊을 때 신학교에서 2년 공부함) 성경 경외함과 깊은 겸손으로 부터 나왔다. 가끔 그의 생각을 표현하든지 외움의 한계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인내함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어 그의 생각을 듣고 이해함에 힘들 때 그가 더 편하게 시도하도록 만들었다.

론은 우리에게 장애들에 대해 배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는 우리 상처들을 정죄함의 두려움에서 진실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 왜냐면 그는 우리의 받아들임을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선물이나 운전이나 차비나 개인적 물품등으로 도와줘 왔었다. 또한 그는 정신병과 함께사는 다른 재향군인들과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도움의 범위는 직접 기부나 교회 행사때 남음을 나누거나 새 양말이나 면도기들을 모으고 크리스마스 때마다 케럴을 부르는 것이다.

우린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을때 눈과 맘을 여는 것들을 발견하였고 사회가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하였다.

-질 C. 펜스키 목사

창조성은 태도를 바꾸는데 촉진한다

펫 휴싱, 지랜드 노회(CRC)의 지역 대변자

미시간 질렌드의 볼쿨로 개혁교회에는 주일마다 39살 우드윅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는
—도의

자신이 할 수 있는 무슨일이든 돋고있다. 댄은 다운 증후군을 갖고있지만 13년 이상 현금봉사를 해 오고있다. 그는 교회의 모든 사람을 알아 장로들과 함께 봉사하고 주보에 자기이름이 봉사위원으로 기록됨을 보고 기뻐한다. 댄은 다른 일도 돋기를 원해 2005년 12월에 보조 집사로 임명받았다. 그는 정기적으로 한달에 몇번 현금위원을 하고 다른 집사들이 비울때도 대신한다.

“그는 그 일을 아주 좋아합니다.” 댄 엄마인 브랜다 우드윅은 말한다. “특히 그는 현금기도 위해 접시를 들고 앞에 나갈땐 희열에 젖습니다. 이곳은 그에게 큰 자긍심이며 왜냐면 우린 실제적으로 많은 경우에 그가 할 수 없기에 노라고 해야합니다. 그러나 이 한가지는 우리가 확실히 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일을 기대합니다!”

보쿨로교회의 교인으로써 나는 댄의 역활이 직접 그에게 영향을 주는지 보아온다. 그의 얼굴은 돋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의 위치는 매년 재생하지만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함이 의심이 없이 잘 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몇 분의 장애우들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환영돼도록 우리는 여러가지들을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교실 단을 추가할 때도 우린 건물 전체의 입구들을 변경하였다. 또 우린 전체 크기의 엘레베이터를 지상수준이나 지하실 혹 1층까지 열도록 추가하였다. 매 주일 집사들은 엘레베이터를 열고 누구든 도움이 필요하면 자동차 주차 서비스도 준비하였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특히 겨울에. 또한 우린 심리 루프나 화장실 출입들과 성전에 휠체어를 위한 여러 좌석의 단편을 설치하였다.

브랜다 우드윌은 말하기를 교회가 39년 전 댄이 태어날 때에 비하면 장애우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많이 달라짐을 보았고 장애우 사무처 사역들이 그 태도를 바뀌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그녀는 믿고있다. 나는 바라기를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창조적이고 다양한 은사들이 사용되어 누구에게나 그 문들이 열려있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되길 기도한다. 그런때가 되면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각 자 고유의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위해 사용하며 자람을 볼것이다.

사역, 삶처럼, 공동체에 최고로 일어남

조이 푸트, 드레이톤 개혁교회 성도, 드레이톤, 온타리오, 웨스턴 신학교 학생, 헐랜드, 미시간

3년 전에 나는 뇌에 낭종이 있어 간질 발작을 일으키고-청각 상실과 중앙 청각 처리의 어려움을 생기는 축복을 가졌다. 나는 “축복”이란 단어를 일부러 썼는데 왜나면 좋은 날엔 이런 도전들이 축복들임을 깨닫았기 때문이다 (나쁜 날엔 전혀 다른 이야기이지만!)

매일 새로운 날에 나는 이런 도전들을 맞이한다. 각 교실마다 듣기가 도움이 되지 않고 각 교회의 말소리가 내가 일기엔 부족하고 그리고 가는 거리마다 쉬운 걷기나 자전거 거리가 아니다. 좌절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전들은 나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기에 축복인 것이다.

첫째,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사람들의 바깥쪽을 보지 못함을 배웠다. 실제로 내가 큰 간질 함을 보지 못한 이상 당신은 내가 간질을 가졌음을 알지 못할것이다. 내가 듣는 도구를 만지거나 수화로 좌절감의 상황을 보이지 않으면 내게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듣거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지도 못할것이다. 이처럼 나도 사람들의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모두가 다 깊은 이야기를 갖고 있다-부모에겐 정상적인 자녀처럼, 내가 보는 교회 사람들은 ‘믿음의 성자들처럼’ 보이고, 사람들은 삶의 다른 구석은 힘든 길을 가기도 한다. 그들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복잡할 수도 있다.

둘째로, 나는 듣기를 잘한다. 잘 듣지는 못하지만 들어도 나는 청각 처리 장애로 인해 이해가 어렵다. 잘 듣는다는 것은 당신이 내게 얘기할 때 당신 얼굴을 잘 보든지 내가 들은것을 정확하게 생각해 보는것이든지 내게 얘기할 때 천천히 똑똑이 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잘못 이해했을 때 웃거나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예로, “두루마리 책들”이나 “다람쥐들”的 발음은 거진 비슷하다. 내가 혼동이 오면 나를 돋는 친구가 있어 좋다.)

세째로, 나는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혼자 할 수 없고 당신도 마찬가지다. 우린 우리들 자신의 도전이나 어려움들을 삶이나 사역속에서 만나지만 우린 그것들을 혼자 하지는 않는다. 우리 주위의 공동체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것들을 알아 할 수있게 한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린 혼자 살 수 없다.

좌절감이 높은 날들일 때 나는 축복의 면을 잊고 오직 도전들만 본다. 또한 주님이 나와 다른 사람들과 분명하게 일하는 어떤 날들은 이런 축복들이 주님과 그의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가게 한다고 나는 상기시킨다.

편집자의 편지

장애: 책임 혹은 자산?

내가 신학교 졸업하면서 교회 사역을 향한 나의 꿈 많은 열심은 시간이 가면서 후보자 과정의 좌절감으로 인해 수그러졌다. 수십통의 이력서와 연관된 편지들을 다양한 미주개혁교회들 (RCA)에게 보냈다-크고 작은, 단독목회나 직원목회, 동부해안서 서부해안 까지. 상상하겠지만 나는 신청을 하였다.

눈에 뵈지않는 갑아 대던 장벽은 당시 나의 장애를 얘기하지 않았지만 보이는 나의 장애는 어떤교회도 수용하지 않음을

느꼈다. 그 당시 나는 10개의 다른 교회들로부터 인터뷰를 가졌지만 10번의 ‘고맙지만 사양합니다’하는 편지를 받고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나의 신뢰는 얇아지게 되었다.

그것은 25년 전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안의 나의 믿음과 그분의 구속적인 목적들은 깊어갔지만 나의 장애와 연관된 어떤 거절감은 아직도 따갑게 느낀다. 사실 나의 장애가 자산으로 느낀 때는 오직 지금 나의 일인 미주개혁교회 장애 사무처의 코디네이터로 수행하면서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여러 모양으로 이끄심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이고 확신이란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른것들의 결정으로 좌절되고 있었다. 교회애 대한 나의 소망은 모든 사람의 은사들이 누구나 관계없이 (장애가 있건 없던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는 우리 교회들의 집사, 장로나 목사로 부르심이 확인되고 참여되길 바란다.

-테리 A. 디영

페이스북 안에 우리 ‘같이’

사역의 자원들. 좋은 비데오들과 연결. 생각하고 자극되는 글들. 통계 및 동향

장애와 사역에 대해 의견주기 및 북미주 개혁교회와
미주개혁교회 장애우 관련처서 개인과 교회에게 유용한
아이디어들 사용하기 페이스북 면.

“Like” us at www.facebook.com/disabilityconcerns.

© 2011 Disability Concerns ministries of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and 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Breaking Barriers* is published quarterly by CRC Disability Concerns, 2850 Kalamazoo Ave. SE, Grand Rapids, MI 49560-0800, and P.O. Box 5070, STN LCD 1, Burlington, ON L7R 3Y8; and by RCA Disability Concerns, 4500 60th St. SE, Grand Rapids, MI 49512-9670. Rev. Mark Stephenson, Director of CRC Disability Concerns (888-463-0272; mstephenson@crcna.org), and Rev. Terry DeYoung, Coordinator for RCA Disability Concerns (616-541-0855; tdeyoung@rca.org), edit *Breaking Barriers* together. Permission is given to make copies of articles as long as the source is recognized.